



김용래 교수
한국불교 토착 36選

정혜·백련결사, 승풍 진작을 외치다

13. 결사의 시대와 선교겸수 전통

고려 문벌귀족 사회에서 문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처우를 받으면서 불만을 품어온 무신들이 1170년 군사쿠테타를 일으켜 무신정권이 성립되었다. 이후 약 100여 년간 이어진 무인집권기에는 무인들 내부의 갈등 속에서 무인 집권자의 잦은 교체와 국왕권의 약화, 문벌귀족 출신 문인 관료층의 세력 위축 등 정치사회적 혼란이 이어졌다. 즉 인사권, 재정권, 군사력에 바탕을 둔 국가의 공권력이 특정 무인세력의 사적 전횡하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특권을 누렸던 문벌귀족은 물론 농민, 천민 등 전 계층을 망라한 전국적 범위의 민란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에 왕실은 물론 문벌귀족 세력과 밀착되어 있던 중앙의 불교계도 무신정권에 반발하여 결사하였다. 1174년 개경의 승려 2천여 명이 무신정권에 대항하여 봉기하였고, 이후 1217년 고려에 침입한 거란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 동원된 개경의 승려들이 집권자 최충현을 살해하려다가 수백 명이 죽임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왕실 및 문벌 출신이 교단을 이끌었던 화엄종과 법상종 같은 개경 중심의 교종 교단은 급속히 쇠퇴하였고, 선종과 천태종에서도 중앙에서 활동하던 세력은 밀려나게 되었다. 대신 지방에서 일어난 결사가 자율적 운영, 조직적 실천수행을 통해 불교 혁신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부상하였다. 이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교종에서 선종으로 교단의 주도권이 넘어갔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환기 불교계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가 바로 보조국사 지눌(1158~1210)이었다. 호를 목우자라고도 하는 지눌은 하급관료 가문 출신으로 선종 사굴산문에 들어가 1182년 승과에 합격하였다. 하지만 중앙 불교계의 모습에 크게 실망하여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1190년 대구 팔공산의 거조암에서 선정수행과 지혜를 함께 닦을 것을 내세우며 선승과 교학수, 재가신도를 포괄한 결사를 조직하였다.

지눌이 쓴 '권수정혜결사문'에서는 당시 승풍의 해이와 분분 상실을 지적하면서 수행인의 바른 자세를 재정립하기 위해 결사를 조직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정혜쌍수를 주장하며 염불과 독경, 선행 등도 승려가 지켜야 할 상법이라고 인정하였지만 이 역시 근본을 궁구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후 1200년에 전라도 승주의 송광산(松廣山) 길상사(吉祥寺)로 옮겨 결사운동을 확대, 지속하였는데, 그의 결사운동이 유명세를 타게 되면서 1205년 왕명에 의해 산과 절의 이름이 조계산(曹溪山) 수선사(修禪社, 현재의 송광사)로 개칭되었다.

지눌은 앞서 창평 청원사에 있을 때 6조 혜능의 <육조단경>을 통해 진성(眞性)을 깨우치는 경험을 하였는데, 결사의 명칭인 정혜는 정과 혜를 함께 닦으라는 <육조단경>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어 허가산 보문사에서 이통현이 쓴 <신화엄경론>을 읽고 깨우침을 재차 확인하였고, 1197년 지리산 상무주암에서 간화선의 주장자인 대혜 종고의 <어록>에서 마지막 깨달음을 얻었다. 즉 "선은 고요한 곳에 있지 않으며 소란한 곳에 있지 않다. 일상의 인연을 좇는 곳에 있지 않고, 또 생각으로 분별하는데 이



보조국사 지눌 스님의 진영. 승풍진작을 위한 정혜결사를 이끌었다.

지도 않다. 먼저 고요한 곳, 소란한 곳, 일상의 인연을 좇는 곳, 생각하고 분별하는 곳을 버리지 않고 참선해야 홀연히 안목이 열리고 모든 것이 집 안의 일임을 알게 되리라"는 구절에서 계발을 받았다고 한다.

지눌은 <육조단경>과 <신화엄경론>, <대혜어록>에서 각각 깨달음을 얻었고 또한 문도들에게 <금강경>을 읽으라고 항상 권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수심결>, <계조심학인문>, <원돈성불론>, <화엄론정요>, <법집법행록정요법입사기>, <간화결의론> 등 그의 저술에는 수행의 입문으로서 교를 인정하는 선교겸수, 수행방식으로서 둔오점수와 간화선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 연장선에서 지눌의 수행법은 성적등지문, 원돈신해문, 간화정결문의 삼문 체계로 요약된다.

성적등지문은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혜능의 정혜쌍수를 의미하며, 원돈신해문은 이통현의 사상에 의거해 중생이 본래부터 성불한 존재이므로 자신이 부처임을 직시하고 실천하자는 내용이다. 간화정결문은 수행의 최종 단계이자 가장 뛰어난 수행법으로 대해 종고가 주장한 간화선을 수용한 것이다. 이는 각각 혜능의 남종선, 이통현의 실천적 화엄론, 대혜 종고의 화두를 참구하는 간화선을 기반으로 그 나름의 수행방법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처럼 지눌의 사상 및 수행법의 가장 큰 특징은 먼저 자신이 부처임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자는 둔오점수의 방안, 화엄교학을 수용한 선교융합의 방향, 간화선 수행의 선양이었다.

지눌의 제자로서 수선사 2세 사주가 된 진각국사 혜심(1178~1234)은 최상근에게 맞는 간화 경결문의 수행법을 더욱 발전시키고 체계화하였다. 혜심은 고려의 국립대학 격인 국자감에서 유학을 공부하다가 모친 사후인 1202년에 출가하여 지눌의 제자가 되었다.



송광사 승보전에 그려진 벽화. 보조 지눌국사가 정혜결사문을 낭독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지눌 '정혜쌍수' 주장... 결사 조직 승풍 해이 지적, 바른 수행 강조 화엄종·법상종 교종 계열도 결사 요세, 교관겸수의 '백련결사' 추진

호를 무의자라고도 하는 혜심은 각종 어록 등에서 공인과 화두를 간추려 집성한 <선문염승집>을 편찬하였고 간화선 수행상의 유의점을 제시한 '구자무불성화간법론'을 지었다.

한편 혜심 이후 수선사는 지방 향리층의 후원을 받던 지눌 때와는 달리 왕실과 최씨 무인정권의 지원을 받으면서 그 위상이 크게 격상되었다. 최씨 무인정권의 2대 집권자 최우는 수선사의 최대 후원자였고 두 아들을 혜심에게 출가시키기도 했다. 그렇기에 혜심은 승과 출신이 아닌에도 대선사라는 선종의 최고위 승계를 받았다.

최우는 몽골의 침략으로 수도를 강화도로 옮긴 후 자신의 원향 선원사를 강화도에 세우고 사주를 수선사 출신으로 임명하였는데 이후 그것이 관례가 되었다. 이어 원 간섭기에 들어서도 수선사는 원 황실의 지원까지 받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교단을 주도해 나갔다. 송광사가 16국사를 배출한 승보사찰로 불리게 된 것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된 일이다. 승보는 불법승 삼보의 하나로서 진신사리를 모신 통도사를 불보사찰, 고려대장장이 안치된 해인사를 법보사찰이라고 부른다. 지눌과 수선사의 위상에서 알 수 있듯이 선종의 조계종이 교단을 대표하면서 화엄종 등의 교종을 압도하게 된 것이 이 시기의 특징이었고 이후 선종 우위의 전통이 굳어져 갔다.

한편 이 시대의 또 다른 특징인 결사운동은 지눌의

수선사를 대표적 상징으로 들 수 있지만, 화엄종의 반통사와 수암사, 법상종의 수정사 등 교종의 결사도 행해지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천태종의 요세(1163~1245)가 조직한 백련결사를 간과할 수 없다. 원묘국사 요세는 경상도 함천 지역 호장 가문 출신으로 12세에 출가하여 23세에 천태종 승과에 합격하였다. 이후 1198년 개경의 사찰에서 열린 법회 분위기에 실망하여 스스로 신앙결사를 결성할 뜻을 가졌다. 그는 일단 거조사 시절의 지눌의 정혜결사에 참여해 보았지만, 참선수행 위주라만 진행되는 방식에 동의할 수 없었다.

요세는 1208년 월출산에서 "천태의 묘화에 의지하지 않으면 수행의 120가지 병을 아홉 수 없다"는 <중경록>의 저자 영명 연수의 연구를 떠올리며 천태의 교학과 관행, 법화신앙에 의거한 수행방식을 결정하였다. 그가 중국 천태종의 개조 천태 지의의 <법화현의>, <법화문구>, <마하지관> 3대부의 핵심을 요약 정리한 <삼대부정요>를 펴낸 사실에서도 교관겸수의 천태 전통에 대한 계승의식이 강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에 전라도 강진의 만덕산으로 옮겨 1216년 인근 호호들의 후원을 받아 백련결사를 조직하였다. 백련결사는 중국 남북조시대에 정토신앙을 위주로 결사를 처음 조직한 여산 혜연의 백련사에서 따온 명칭이었다. 그리고 1232년에는 백련사에 보현도량을 설치하였는데 천여 명의 대중이 운집하는 상황을 이루었다고 하며 왕족과 귀족 관료로부터 일반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였다. 더욱이 소치는 아이와 말 또는 더벅머리까지도 고개를 우러러 바라보며 귀의하였다고 전하는 등 상당한 대중성을 확보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포용적 성격은 당시 결사운동의 지향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며 사상적으로도 모든 중생이 평등하다는 천태의 법화일승의 취지

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요세의 백련결사와 그 중심이 된 보현도량의 수행 방식은 기본적으로 천태 지의의 <법화삼매참의>에 의거한 것이지만, 천태의 수행법과 염불 정토신앙을 결합한 송대 천태종의 경향성까지도 받아들였다. 이는 타력적인 아미타 염불신앙을 정식 수행방안으로 용인하지 않은 지눌과도 차별성을 갖는 것이었고, 고려 천태종을 개창한 의천이 참회행법이나 정토신앙을 배제한 것과도 다른 것이었다. 요세는 매일 선관을 닦으면서 <법화경>을 독송하였고 준제다라니 천 번, 아미타불 만 번을 염송하고 53체불을 12번씩 들며 전생의 업보를 참회하는 수행을 몸소 실천하였다고 한다.

요세의 백련결사와 보현도량도 비록 수선사만큼은 아니었지만 최 씨 무인정권의 비호와 지원을 받았다. 예를 들어 최충현의 부인이 백련사에 무량수불을 봉안하였고 최우는 보현도량에서 <법화경>을 간행하게 하고 직접 발문을 지었다. 백련결사의 전통은 이후 유학자 출신 승려인천인과 천책 등에 의해 계승 발전되었고, 이들의 영향으로 중앙의 관료와 유학자 지식인들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였다.

백련사 2세 사주인 정명국사 천인(1205~1248)은 선공관에서 공부하다가 출가하여 요세의 제자가 되었다. 그는 수선사의 혜심에게 참선을 배우기도 했지만 다시 백련사로 돌아와 천태교관, 법화참법에 의한 정토신앙을 이어받았다.

백련사 4세 사주 진정국사 천책(1206~?)은 과거에 합격한 후 <법화경>을 필사하다가 갑자기 발심하여 백련사로 출가하였다. 그는 보현도량이 세워질 때 스승 요세의 명에 의해 '발원소'를 지었고 1236년에는 '백련결사문'을 지어 결사운동의 지향과 의의를 널리 알렸다.

보조 지눌이 활동하던 12세기 후반부터 약 100여 년간 고려는 무신정권과 대몽항쟁의 혼란기를 겪었으며, 이는 기존 교단의 판도를 뒤흔드는 일대 지각변동을 불러일으켰다. 중앙의 교종 종단의 쇠퇴와 선종의 부상, 지방 결사운동의 성행으로 요약되는 이 시기는 한국불교사의 흐름을 뒤바꾸는 전환기이기도 했다.

지눌은 자립적 수행 공동체로서 결사운동을 추동한 대표자였고, 간화선 수행을 선양한 선승이면서도 선교겸수의 전통을 바로 세운 이였다. 조선시대 불교의 특징인 간화선을 우위에 둔 선교겸수의 풍토는 바로 지눌의 수행체계에서 연원하였다.

요세 또한 백련결사를 조직하여 결사운동이 고려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천태의 입장에서 교학과 관행의 실천을 함께 추구하였으며 정토신앙을 포섭하여 불교대중화에 이바지하였다. 이는 거시적 차원에서 선과 교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선교겸수의 전통이 이 시기에 정립되었음을 의미한다.

선과 교의 공존과 융합, 공동체 결사를 통한 수행과 신앙의 일상적 실천은 불교적 가르침의 본원으로 돌아가려는 일종의 신불교 운동이었다. 그리고 이때의 유산은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오랜 전통으로 내면화되어 이어졌다. 이 점에서 지눌과 요세는 법고창신의 정신을 통해 시대를 개척하고 전통을 다지킨 선구자들이었다.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걷고 있는 이들에게 주는 365일 지혜의 말씀!

삶의 여행자를 위한 365일

성문 감수, 조은자 역
신국판/양장/컬러
480쪽/값 23,000원

중국문학과 고전에서 간추린 잠언집!
동양정신의 정수가 담긴 옛 스님들과 선현들의 말씀들이 매일매일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준다.

어린이 반야심경

어른도 함께 보는 알기 쉬운 반야심경 풀이

드디어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반야심경 출간!

어린이의 수준에 맞춘 쉽고 재미 있는 해설, 편안하고 예쁜 삽화들이 어린이들을 행복하고 지혜로운 반야심경의 세계로 이끌어준다.

민병직/신국판/컬러/208쪽/값 11,000원

불보살님 이야기

간절한 기도로 불보살님의 가피와 이적을 만난 이야기!

오로지 간절한 믿음과 신심 하나로 자신이 처한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뜻하는 바를 이룬 사람들의 불가사의한 이야기들을 모아 엮었다.

이수경 편저/신국판/336쪽/값 15,000원